

## 모지코 레트로 전망실

유리로 덮인 넓은 모지코 레트로 전망실은 31층 높이의 고층 맨션 ‘모지코 레트로 하이마트’의 꼭대기 층에 있습니다. 높이 103m에서 간몬 해협을 오가는 배와 모지의 거리를 270도로 내려다볼 수 있는 절경 명소입니다. 최대 100배의 배율을 자랑하는 고성능 디지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해협 건너편에 있는 랜드마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가라토 부두와 아카마 신궁이 눈앞에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시모노세키 항구와 저명한 두 검사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의 유명한 결투가 벌어진 간류지마 섬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간몬교 다리가 보입니다. 구 모지 미쓰이 클럽과 모지코역 등 모지의 역사적 건축물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모지의 야경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전망실의 조명이 은은한 오렌지색으로 어두워집니다. 밤이 되면 거리와 건물이 조명을 받아 낭만적인 풍경으로 변하며 그 웅장하고 평온한 야경은 ‘일본 야경 유산’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전망 덕분에 꼭대기 층의 카페는 로맨틱한 데이트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구로카와 기쇼(1934~2007)

모지 항구에 우뚝 솟은 유리 외관의 고층 맨션 모지코 레트로 하이마트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1934~2007)가 설계했으며 199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구로카와 기쇼는 도쿄의 나카긴 캡슐 타워 빌딩(1972년 준공)으로 일약 유명해졌으며 건축 운동 메타볼리즘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구로카와는 이후 베를린 일독 센터, 멜버른 센트럴, 암스테르담의 고흐 미술관 신관 등의 건축 작품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